

#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책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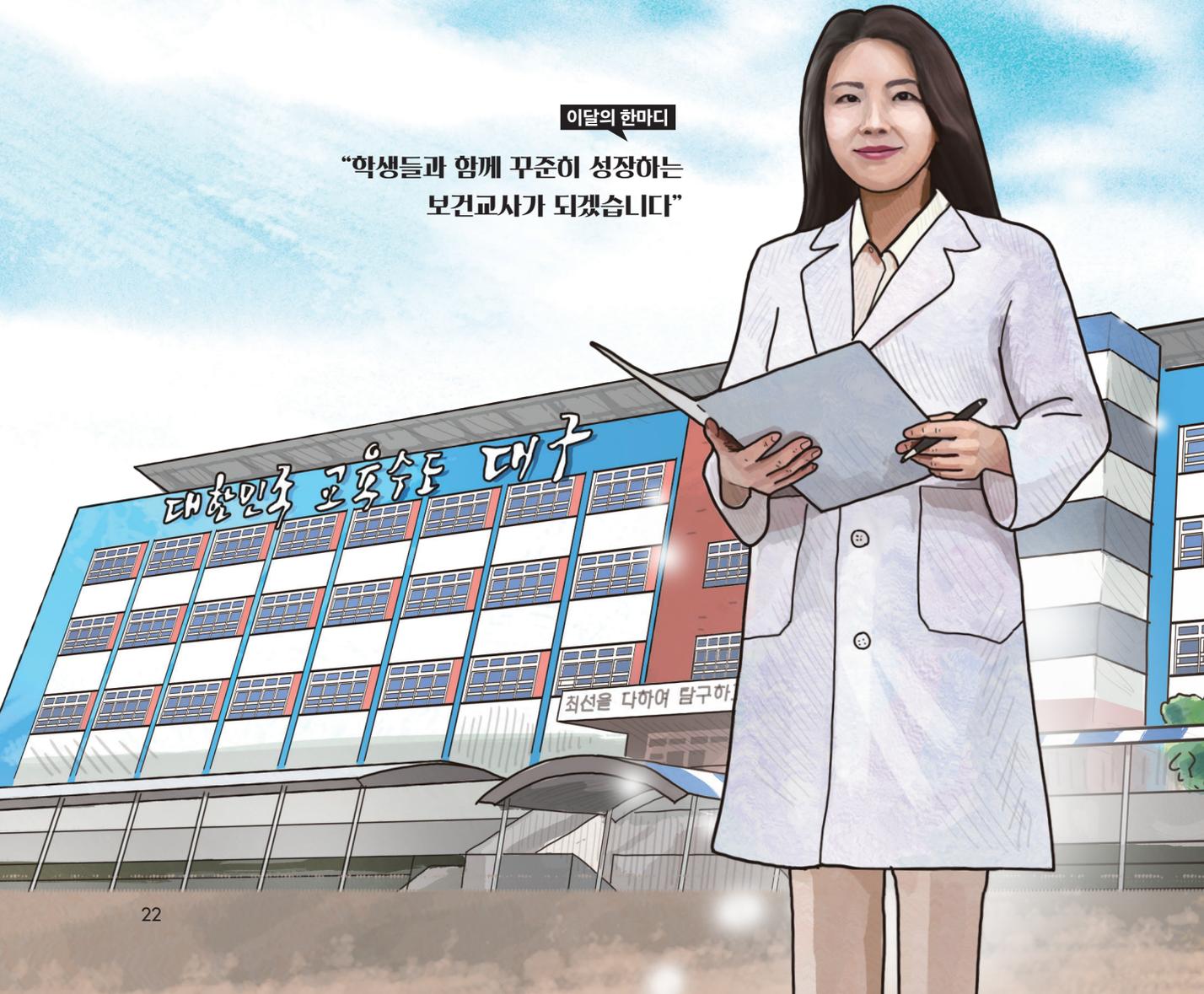
조일고등학교 | 장윤정 보건교사

글·사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지역본부 신경린 사내기자

대구에 있는 조일고등학교는 1974년에 개교하여 ‘힘찬 비상, 더 높은 꿈을 위한 도전’이라는 목표 아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그중 학생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장윤정 보건교사는 늘 환한 표정과 따뜻한 말투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준다. 학생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오늘도 보건실은 빛나고 있다.

이달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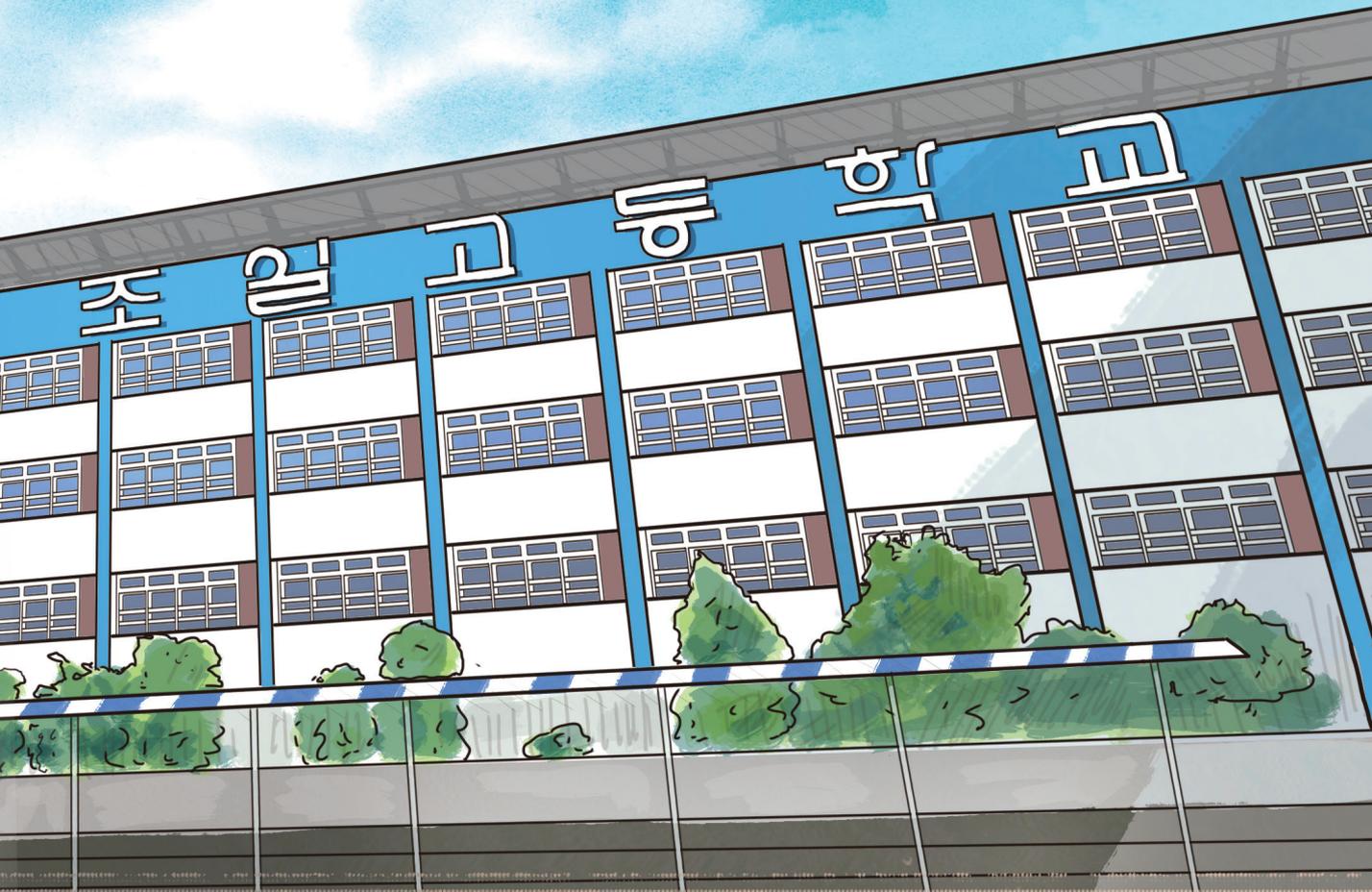
“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 학교 속 작은 병원, 보건실

조일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440여 명,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윤정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의료 처리는 물론 누구보다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간호학과를 다니던 그는 교직 이수 기간 평소 아이들과의 소통이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을 느껴 2009년 보건교사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보건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의 외상 치유와 상담 등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건실에 와서 ‘아프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다쳐서 오는 외상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경우가 꽤 많았어요. 보건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난 상처도 마음에 난 상처도 아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옆에서 한 명, 한 명 전부 눈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노력해 나갈 거예요.”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향한 그의 포부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실은 이른 아침부터 장윤정 보건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학교 입학 초기에는 뇌전증, 당뇨병, 선천적 병력, 수술 병력 등 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수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단체활동에서 쉽게 감염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보건교육 등 외에도 여학생의 생리통, 몸살감기, 근육통, 두통 등을 대비해 각종 상비약을 갖춘다.

“약은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약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같은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작용 없이 몸에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케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알약을 못 먹는 학생도 꽤 있어 이를 대비해 어린이용 시럽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교사로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모두가 인정한 보건교사

장윤정 보건교사는 2024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생활지도 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다. 최상현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열정과 창의성을 품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장윤정 보건교사에게 매우 고맙다”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랑스러운 것도 잠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장윤정 보건교사의 열의는 계속된다. 먼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건강과 보건에 관심



(왼쪽부터) 최상현 교장과 장윤정 보건교사.  
장윤정 보건교사는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다.

“●●  
보건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건교사가 된 지금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 또한 늘 지금처럼 끊임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기술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습득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조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장윤정 보건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